

# 미쓰비시상사의 LNG 비즈니스



## LNG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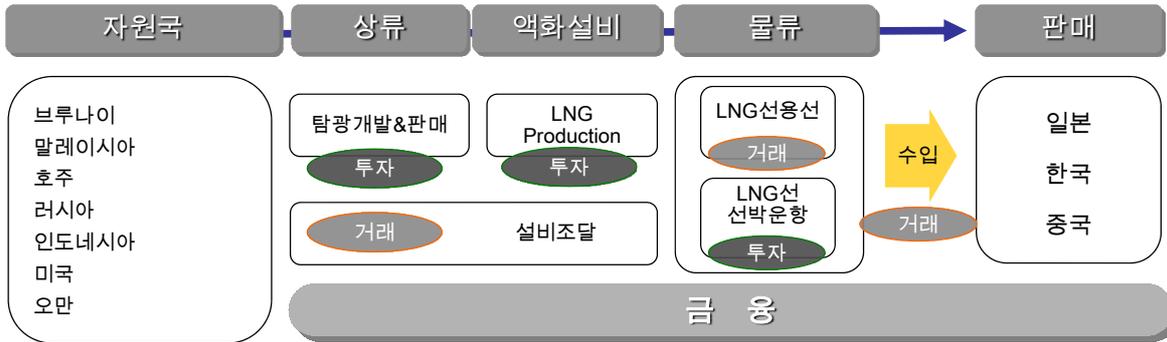
LNG탐광



액화설비



LNG선



# 한국의 가스·석유 개발

**모잠비크 한국가스공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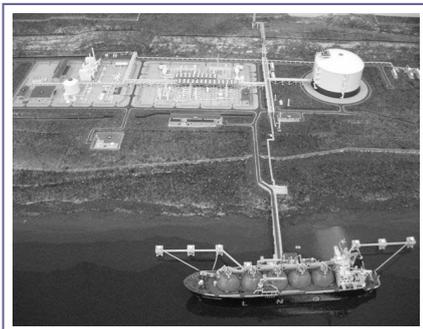
**우즈베키스탄 LG상사**

**미얀마 대우인터내셔널**

# 돈가스노로 LNG 프로젝트(인도네시아)

## 일본·인도네시아·한국에 의한 최초의 「올·아시아」 LNG 프로젝트

- 인도네시아국유석유·가스회사 「폴타미나사」, 동국 민간최대대기업에너지회사 「메도코사」, 「한국가스공사」와 함께 「돈가스노로 LNG프로젝트」에 참가.
-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배양해 온 LNG비즈니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대주주 (44.9%)로서 계획에서 플랜트 조업까지 주도.
- 2014년부터 연간 약 200만톤(미쓰비시상사 지분 약 90만톤)의 LNG를 생산하여 일본과 한국에 출하·판매 예정.



Mitsubishi Corporation

Proprietary & confidential

# 캐나다·셸 가스 프로젝트

## 비재래형 천연가스 안건에 대한 대응

### 캐나다 노부리티츠슈 콜롬비아주

**三菱商事**

**北米最大ガス田開発**

4800億円日本にLNG輸出へ

**発電コスト低減**

シェールガスの採掘方法

1500メートル 3000メートル

1000~2000メートル以上

日中のLNG輸入量

年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輸入量(千トン)	6000	7000	7500	8000	8500	9000	9500	10000	10500	11000

**東ガス・大ガス・中部電 加の新型ガス開発参画**

ガタゴシールガス開発プロジェクトの2社参画

項目	東ガス	大ガス	中部電
出資比率	7.5%	7.5%	7.5%
出資総額	1000億円	1000億円	1000億円

三菱商事から権益 LNG日本供給も



Mitsubishi Corporation

Proprietary & confidential

# 인프라사업 협력

- 신흥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인프라사업
  - ☞ 양국기업은 아시아, 중동 등을 무대로 힘들게 경합
- 인프라사업→ODA 또는 PPP방식 전개가 시대의 추세
  - ☞ 특히 민간이 보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향으로.
- 한일양국이 강점을 공유하여 경쟁력 향상, 리스크 분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.



# 인프라사업과 경합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

## 양국기업 협력에 의한 신사업분야 진출, 경합분야에서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대응

### 1. 물(水)사업

**水関連事業**  
**日立、韓国**  
**上下水道整備**

**LGと合併**  
**整備世界で受注**

排水処理、再利用する。LGは、排水処理に日立の技術を使用する。整備にかかる総額は、100億円を超える。LGは、排水処理の分野で、日立と合併することで、世界市場での競争力を高める。日立は、排水処理の分野で、韓国市場での競争力を高める。日立は、排水処理の分野で、韓国市場での競争力を高める。

- LG전자와 히타치플랜트테크놀러지의 합작에 의한 물사업회사(LG-Hitachi Water Solutions) 설립 (2011년 10월).
- 한국에서 물사업(주로 각종공장의 배수 처리설비와 상수·하수처리시설용 기기제조·판매, 시스템의 EPC(설계·조달·건설), O&M(시설 운전·유지관리), 수처리기술의 연구 개발 등)을 추진하고 장래적으로는 제3국의 물사업 참가도 검토.
- 히타치의 물사업 경험·노하우와 LG의 가정용정수기, 막 제조에 의한 코어기술 융합.

### 2. 통신 플랫폼

**ドコモ・サムスン・富士通**

**日韓で携帯**  
**設立へスマー**

世界携帯電話とスマートフォンの販売台数(千台)比較表  
2010年(推定) 11.12 13.12 15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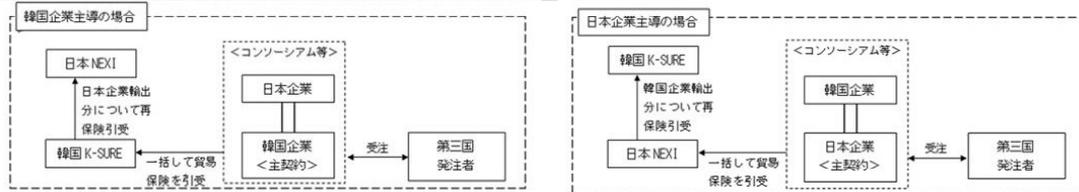
携帯電話向け通信用半導体のシェア(2010年の市場規模119億ドル)  
STマイクロシステムズ(米) 36.8%  
メディアテック(台) 20.0%  
ノキア・インテル(米) 10.0%

**端末開発で**

- NTT도코모, 삼성전자, 후지츠클, NEC, 파나소닉이 합작회사 설립에 기본합의 (2011년 12월).
- 시장에서 경합하는 한일휴대전화메이커와 일본의 휴대전화 캐리어의 협력에 의해 휴대전화용 통신제어반도체 개발을 지향.
- 공동으로 미국 퀄컴 의존에서 탈피를 지향하는 것이며 상호의 강점을 공유함과 아울러 경합하면서도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사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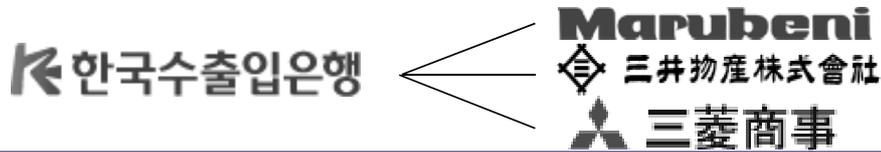
## 제도금융면 등에서의 협력

### 일본무역보험(NEXI)과 한국무역보험공사(K-SURE)의 재보험계약 체결(2011년 2월)



- 일본무역보험(NEXI)과 한국무역보험공사(K-SURE)가 One-stop-shop 재보험계약을 체결.
- 한일양국의 기업이 제휴하여 제3국에서 수주하는 안건에 대해서 1개 창구(원스톱)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NEXI와 K-SURE에서 한 일의 수출부분 등의 비율에 따라 리스크를 분담.
-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서의 제휴지원이 목적.

###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각서 체결 (2011년 9월)



- 마루베니, 미쓰이물산, 미쓰비시상사가 각각 한국수출입은행과 각서를 체결.
- 전력, 물, 석유가스, 청정&재생가능 에너지, 인프라 등 분야의 정보·의견교환을 목적.
- JBIC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협조용자에 의해 한일간의 인프라 협업을 더욱 지원하게 되기를 기대.

## 한일EPA

한일기업의 제휴  
 글로벌시장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  
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와  
 이를 후원해주는 한일양국정부의 역할이 중요.



한일EPA의 조기교섭 재개, 조기체결  
 양국의 민민(民民) 협력을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
 양국의 무역 밸런스만을  
 미시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
 거시적인 안목을